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4 학년도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수시모집] |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정시모집] |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북한이탈)

※ 이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미래의

서울대학교

학생에게



새로운 삶의 시기에 진입한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한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은 직업적 전망을 얻기 위해 스펙을 쌓는 것이 배움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그러한 일들도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나 좋은 학점의 획득과는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은 무엇보다도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지성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과 사회, 자연의 질서와 원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사람, 모든 사물과 현상을 총체적으로 인식하고 여러 각도에서 둘러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참된 지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전공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안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공학 등 여러 학문 분야를 포괄하여 '학제를 뛰어넘는 배움'을 통해 통합적 사고능력과 창조적 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양 수업과 부전공, 복수전공,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설계할 수도 있는 전공 등 제도적 장치들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과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참된 지성인'으로서 여러분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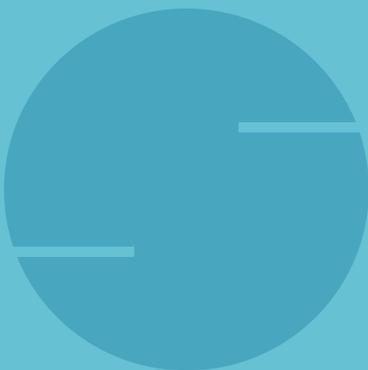
총장 유 홍 립



<b>I.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b>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p.08 p.09
<b>II. 학생부종합전형 안내</b>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p.11 p.11 p.12
<b>III.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b>	· 서류평가 안내 · 면접 안내	p.14 p.21
<b>IV.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b>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세요	p.31
<b>V.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b>	·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하나요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	p.41 p.52
<b>VI.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b>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p.56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p.64
● 아로리 사용 설명서		p.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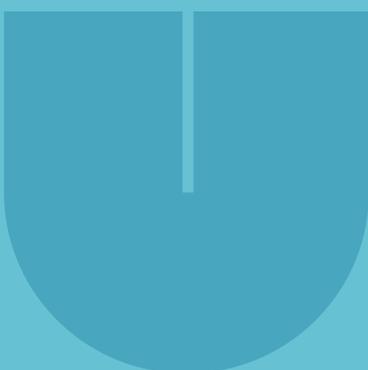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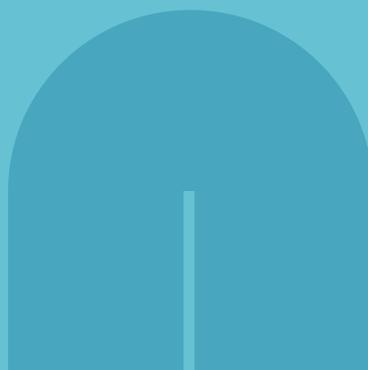
---





미래의  
서울대  
학생에게

I.



# 서울대학교는 이런 학생을 기다립니다

##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

이는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지향점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은 미래를 개척하고 인류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글로벌 융합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학업능력이 우수한 학생
-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
-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학생
- 다양한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지닌 학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학생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우수한 학업능력과 적극적인 학업태도, 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리더’나 ‘진취성’이란 단어가 다소 거창하여 구체적인 개념이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멀리 있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미 완성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차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은 단순히 수능 몇 점 또는 내신 몇 점의 점수만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하고 전인적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이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사회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지 꿈을 가져 보십시오.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키워온 꿈이 서울대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창의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모든 전형은 우수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 전형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에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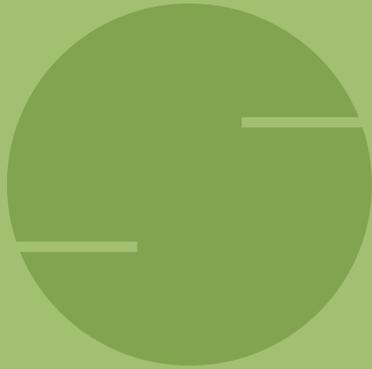
수시모집	정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부종합전형(지역균형전형)</li> <li>·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li> <li>·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사회통합)</li> <li>· 실기위주전형(일반전형_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능위주전형(지역균형전형)</li> <li>· 수능위주전형(일반전형)</li> <li>· 수능위주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농어촌·저소득)</li> <li>· 학생부종합전형(기회균형특별전형_특수·북한)</li> </ul>

위 전형 가운데 수시모집의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음악대학 피아노과, 관현악과 제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과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북한이탈주민)은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각 전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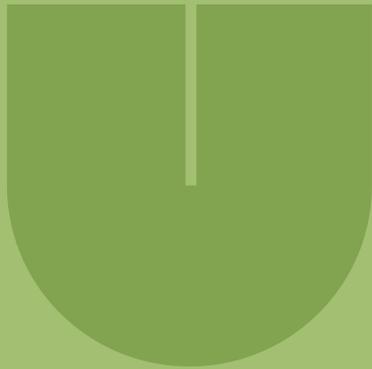
구분	전형 명칭	전형 소개	전형 요소*
수시	지역균형전형	다양한 지역적,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일반전형	학업능력이 우수하고, 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에 재능이나 열정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 학생의 열정과 재능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모집단위 특성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고사
	기회균형 특별전형 (사회통합)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지역적,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열정, 도전 정신을 통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우수한 성취를 이룬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 저소득 학생, 국가보훈대상자, 서해 5도 학생, 자립지원 대상 아동,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지원하는 농생명계열 고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정시	기회균형 특별전형 (특수·북한)	장애로 인한 어려움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데 대학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북한이탈주민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서류평가, 면접

\*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평가 또는 적성·인성면접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Ⅱ.



## 학생부종합전형이란 무엇인가요

학생들의 가능성과 자질은 사람들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정형화된 공식과 기계적인 수치는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학생이 속한 환경과 학업 동기, 학업에 대한 의지, 열정, 노력과 같은 요소들도 반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한 종합적인 평가 제도가 바로 학생부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치로 계산된 성적만을 반영하지 않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뿐만 아니라 학업에 대한 노력, 의지, 열정, 적극성, 도전 정신,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교 교육 기반의 평가 방식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와 같은 종합평가 방식을 준비하여 2002학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왔으며, 전문적인 평가체계와 평가인력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이 왜 필요한가요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이 수능과 내신 위주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발전 가능성을 계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바람직한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점수 위주의 선발 방식에서는 매우 미미한 점수 차에 의해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됩니다. 이 같은 방식은 간단하고 편리한 선발 방법이지만 4차 산업혁명 융복합 시대의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선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식인지는 의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발전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하기 위해 수치의 단순한 합산을 넘어서는 평가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 성적, 교내 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방식의 가장 큰 의의는 각각의 점수를 단순히 합산하는 방식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더욱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학생부종합전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이 변화했다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별도의 준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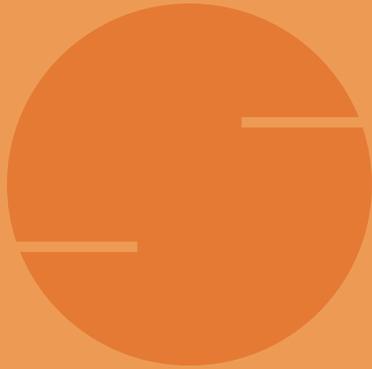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서 확인했던 서울대학교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인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모습은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교육목표에 맞는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교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고, 원하는 과목이 있다면 관련 영역의 선택 학습까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 자원이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진로 선택을 위한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고 원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을 활용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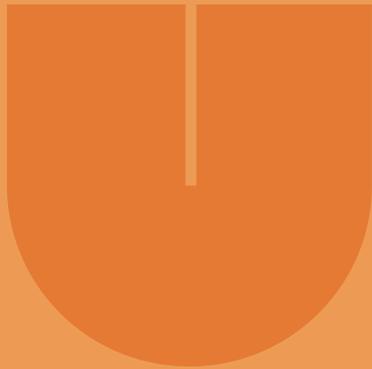
나에게 필요한 과목인데 소수학생들만 선택해 평가에서 불리할까 두려우시다면 한 번 도전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교육 자원이 부족하고 선택의 기회도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교육 중심의 대학 입학전형 운영을 통해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연스러운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 교원·학생·학부모뿐만 아니라 대학이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방법

III.



# 서류평가 안내

## ● 서류평가란 무엇인가요

서류평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첫 번째 단계이며 여러분이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에서는 서류평가 결과가 우수한 학생들을 1차 선발하여 면접 또는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학생이 제출한 서류는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의 평가, 협의, 검토를 거쳐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에는 현재 27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약 110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선발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평가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므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p><b>학업능력</b></p> 	<p><b>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b></p>	<p>주어진 여건에서 교과 및 학업관련 활동의 성취수준과 논리적 사고력, 과제수행능력 등의 역량을 평가합니다.</p>
<p><b>학업태도</b></p> 	<p><b>스스로 알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b></p>	<p>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 깊이 있는 배움에 대한 열의, 학업수행 과정에서의 적극성 및 진취성, 진로탐색의지 등의 학업 소양을 평가합니다.</p>
<p><b>학업 외 소양</b></p> 	<p><b>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b></p>	<p>학교생활을 통해 드러난 개인의 품성뿐만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p>

## • 학업능력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지원자의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만 학생 선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우수한 학업능력입니다.

학생의 학업능력은 반드시 교과 성적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교과 성적이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학업 관련 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통해서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습니다.

### [ 평가 기준 ]

- ✔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 ✔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 ✔ 의미 있는 학습경험은 무엇이었는가?
- ✔ 자신의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 ✔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 | 교과 성적 |

교과 성적 지표는 학생의 학업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중 하나입니다. 교과성취도를 파악할 때에는 교과 성적을 공식으로 수치화하여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이한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취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할 경우, 교과성취도는 지원자의 학업능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량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학년별/과목별 반영 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 교과목의 3년간의 성취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강자가 3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성적과 수강자가 20명인 과목에서 3등급을 받은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강자 수,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학년별 성적 변화, 선택 과목 특성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해 수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보를 정성적으로 해석하여 더욱 정확하게 학업능력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학년	학기	과목	이수단위	등급	인원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1	1	000	3	1	300	98	71.2	15.4
2	2	000	2	3	20	94	89.2	4.6
3	1	000	2	A	-	-	-	-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의 교과별 학습활동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학생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가 잘 나타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재된 교재나 수업 내용(토론, 발표, 실험 등), 그 안에서 보인 학생의 노력, 과제 수행 내용 등을 통해 학생이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과 수준을 파악하여, 단순히 교과 성적 수치로 볼 수 없는 학생의 역량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경우, 수학 교과 중에서 통계 부분에 강점을 보이는 경우 등 수치화된 성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학생의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 |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급 담임교사가 학생의 학습, 행동 및 인성 등 학교생활에 대한 상시 관찰·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변화와 성장 등이 종합적으로 기재됩니다. 기재된 내용 중 학생의 학습에 관한 내용은 학생의 전반적인 변화와 성장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학업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지적 호기심, 탐구 의지, 학업에 대한 적극성 및 진취성, 과목 선택의 적극성, 진로 탐색 의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교과학습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독서활동, 글쓰기, 탐구활동, 실험 수업 등 다양한 학습 경험에서 드러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업 태도를 보여 왔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수업에서 지원자가 학업 기회를 찾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전했던 내용이 보인다면 지원자의 학업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평가 기준 ]

- ✓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 ✓ 지식을 쌓기 위한 과정은 어떠하였는가?
- ✓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 ✓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 ✓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 ✓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 ● 학업 외 소양

서울대학교는 학교생활에 나타난 지원자의 성품뿐 아니라 리더십, 공동체 의식, 책임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 등을 평가합니다.

입학사정관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내 봉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통해 학생의 대인관계 및 인성 등 개인적 특성을 판단합니다. 이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임원 활동 경력이 많은 학생이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으며, 횡수보다 많은 역할과 활동 내용을 질적으로 판단합니다.

### [ 평가 기준 ]

-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입학사정관은 서류평가 과정에서 크게 학생의 학업능력과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때, 한 종류의 항목만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으며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갖춘 학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수업 참여도와 과목 선택 내역, 교내 프로그램 참여 현황, 학업 관련 학내 활동 참여 노력 등 제출서류에서 드러나는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반영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특정 부분만을 평가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성취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재된 모든 내용을 평가 대상으로 합니다.

## ● 다수에 의한 다단계 평가가 무엇인가요

학생부종합전형의 종합평가 방식은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있으나 서울대학교에서는 한 명의 지원자를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다수의 평가자가 충분한 준비과정을 통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전형 준비에서부터 최종 합격자 선발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평가, 협의,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각 단계별로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주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서류평가에는 27명의 전임입학사정관과 각 단과대학 교수님들로 구성된 110여명의 위촉입학사정관이 참여하며, 총 4단계의 평가과정을 거칩니다.

전임입학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은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해당 모집단위의 전년도 선발 결과 분석 및 전년도 지원 사례 분석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세밀한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 평가에서는 전임입학사정관 두 명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이후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지원자들의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그 결과가 이전 단계 평가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Step 0**  
준비단계

전임입학사정관은 평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매년 많은 준비과정을 거칩니다. 입학사정관 개인의 주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장기간의 교육과 사전 모의평가를 통해 서류평가를 준비합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학업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 데이터 분석, 교사 간담회, 교육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의 우수성 지표를 파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모색합니다.

**Step 1**  
전임입학사정관  
평가

**1차 평가**  
전임입학사정관이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능력, 학업태도, 학업 외 소양 등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로 발전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원자에 대한 평가 의견, 면접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작성합니다.



**2차 평가**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다른 전임입학사정관이 1차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2차 평가자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적인 평가를 진행합니다.

**Step 2**  
1단계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정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한 1단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를 비교하고 검토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 2차 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 이상 상이한 경우, 대학입학전형운영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Step 3**  
위촉입학사정관  
평가

각 모집단위의 교수님들로 구성된 위촉입학사정관이 해당 모집단위에 적합한 인재인지 평가합니다. 한 명의 지원자에 대해 2인 이상의 위촉입학사정관이 평가하며, 1, 2차 평가를 담당한 전임입학사정관과 평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면서 최종 서류평가 결과를 도출합니다.



**Step 4**  
최종 평가

입학본부와 각 단과대학별 평가 책임자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결정합니다. 동일한 지원자에 대해 1~3단계 평가 결과가 상이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합니다.



# 면접 안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면접은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면접과 제시문을 활용하여 물음에 답하는 면접, 두 가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 ● 서류 기반 면접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의 면접 대상자와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북한) 지원자 모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은 지원자가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복수의 면접위원이 지원자의 서류 내용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고 지원자가 이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통해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 등을 확인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0분 내외 (의과대학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60분 내외)	제출서류를 토대로 서류내용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

##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면접실로 이동하여 서류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이동	면접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  →	서류 기반 면접 진행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동안 경험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학생의 경험을 확인하고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므로 면접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답변하는 기술과 태도를 측정하는 면접이 아니므로 말투나 태도를 단기간 연습하기보다는 평소에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여 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겨있는 본인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되짚어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면접 대비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10분 내외로 면접위원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야 하므로 평소 학교에서 토론이나 발표 시간에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앞에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 해 보는 연습이 면접 당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제시문 활용 면접**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한 면접 문항이 사용됩니다. 일반전형 1단계 합격자들에게 제시문과 그에 따른 문항이 제공되고 모집단위별 30분/45분 동안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출제됩니다.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입학전형 안내>를 통해 모집단위(단과대학, 학부, 학과 등)별로 평가되는 분야나 과목을 제시하였으며, 각 모집단위별로 안내된 분야의 제시문과 문항을 활용하여 지원자의 전공적성과 학업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방법	면접 시간	평가내용
지원자 1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면접위원이 실시	15분 내외 / 답변준비시간 별도 부여(30분 또는 45분) (미술대학, 음악대학, 수의과대학, 의과대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평가시간 상이)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

● **어떻게 진행되나요?**

지원자는 면접 대기실에 입실을 완료한 후 수험생 확인 및 안내사항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순서에 따라 면접 준비실로 이동하여 제공된 제시문의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면접실로 이동하여 제시문 기반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 대기실	이동	면접 준비실	이동	면접실
수험생 확인 및 안내	.....  .....	제시문 제공 및 답변 준비	.....  .....	제시문 기반 면접 진행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상의 기본 개념 이해를 토대로 단순 정답이나 단편 지식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과 질문을 바탕으로 면접관과 수험생 사이의 자유로운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모집 단위별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위		평가내용		시간		
				답변준비	면접	
사회 과학 대학	인문대학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15분 내외	
	전 모집단위 (경제학부 제외)					
	경제학부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자연 과학 대학	수리과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통계학과					
	물리·천문 학부	물리학전공	·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천문학전공				
	화학부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명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지구환경과학부	유형 ① ~ ③ 중 택1	①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②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③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간호대학	유형 ① ~ ② 중 택1	①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②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경영대학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공과대학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식물생산과학부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산림과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응용생물화학부	유형 ① ~ ② 중 택1	①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②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모집단위		평가내용		시간	
				답변준비	면접
사범 대학	교육학과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수학교육과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15분 내외
	물리교육과	· 물리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화학교육과	· 화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물교육과	·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지구과학교육과	· 지구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생활 과학 대학	소비자 아동학부	소비자학 전공	·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아동가족학 전공	·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식품영양학과	·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의류학과	유형 ① ~ ② 중 택1	① 화학, 생명과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②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약학 대학	약학계열	·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45분 내외	
자유전공학부	유형 ① ~ ③ 중 택1	① 인문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30분 내외		
		② 사회과학, 수학(인문)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영어 또는 한자 활용 가능)			
		③ 수학(인문), 수학(자연)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 평가			

● 인문학 · 사회과학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인문학 분야, 사회과학 분야 제시문이 각각 제공됩니다. 출제되는 제시문에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 또는 한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사회과학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답변 준비시간 45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정답 여부보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사고력, 논리력 등이며 전반적인 학업소양에 중점을 두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인문학]

(가) 우정의 본질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우리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더 우호적이며, 나와 무관한 제3자들에게보다 나의 친구들에게 더 많은 윤리적 의무와 책임을 진다. 우정은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우정은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만드는 소중한 가치이다. 친구는 상대의 특별한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바로 이 한 명의 남다른 인간'으로 살아가도록 서로를 인도하는 인생의 안내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친구와 맺는 우정의 관계를 본(本)으로 삼는 곳에서만, 진정한 소통과 상생이 가능하다. 나로부터 멀리 있는 타인들, 그리고 멀리서 온 이방인들의 차이를 받기며 그들과 '친구가 될 준비'를 하라! 그런 마음이 준비된 자들의 세계에서만 비로소, 참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나) 나에게 가까운 타인이 행복할 자격이 있든 없든 그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편애(偏愛)라 한다.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이런 치우친 편애의 마음 없이 모두를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이다. 공정한 사람은 '모두'를 나와 연관이 없는 제3자로 바라볼 줄 아는 객관적인 판단의 태도를 취한다. 자기 자신과 가까운 이를 편애하는 마음은 결국 자기를 편애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편애는 자기애의 확장인 것이다. 나 자신과 가까운 이를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공정한 판단의 태도보다 편애의 태도가 앞서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항상, 공정한 판단의 마음이 치우친 편애의 마음을 능가하고 앞서도록 해야 한다. 그 누구를 대하든지, 그의 선함과 옳음을 '먼저' 따져 묻은 다음에 그의 행복에 관한 물음이 '뒤따라' 오도록 하라! 이와 반대되는 순서로 묻는 세계가 있다면, 그런 세계에는 경멸만이 넘쳐날 것이다.

**[문제 1]** (가)의 관점에 대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 설명하시오.

**[문제 2]** 모두가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와 (나)의 견해 중 어느 쪽이 더 절실히 요구되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

● 수학 · 과학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며 수학 및 과학 교과 제시문의 출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학(인문)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자연)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물리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물리학 I, 물리학 II
화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화학 I, 화학 II
생명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지구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수학, 과학 교과 제시문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모집단위에서는 답변 준비시간 45분 내외의 준비시간에 해당 분야의 제시문을 이해하고 답변을 준비한 뒤, 15분 동안 면접을 진행합니다. 면접위원들은 정답 여부보다는 지원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교과 지식, 깊이, 사고력, 응용력 등을 평가하며 모집단위에서 필요한 소양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바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정답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동안 공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 및 구술고사의 예시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2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수학]

**[문제 1]**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x)$ 의 집합을  $X$ 라 하자.

(가)  $f(x)$ 는 닫힌구간  $[-5, 5]$ 에서 정의된 연속함수이다.

(나)  $-5 \leq k \leq 4$ 인 정수  $k$ 에 대하여 함수  $y = f(x)$ 의 그래프는 닫힌구간  $[k, k+1]$ 에서 기울기가 1 또는 -1인 일차함수의 그래프와 일치한다.

(다)  $f(-5) = f(5) = 0$

1-1. 집합  $X$ 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1-2. 집합  $X$ 의 원소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 의 모임을 집합  $Y$ 라 하자.  $f(x) \leq x^2 + 2$  ( $-5 \leq x \leq 5$ )  
 집합  $Y$ 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1-3. 집합  $Y$ 의 원소인 함수  $f(x)$ 에 대하여 정적분  $\int_{-5}^5 f(x)dx$ 가 가질 수 있는 최댓값을 구하시오.

1-4. 닫힌구간  $[-5, 5]$ 에서 함수  $g(x), h(x)$ 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g(x) = -(x+2)^2 + 2, \quad h(x) = (x-2)^2 + a \quad (\text{단, } a \text{는 실수})$$

집합  $X$ 에 속하는 어떤 함수  $y = f(x)$ 의 그래프가 함수  $y = g(x), y = h(x)$ 의 그래프와 만나지 않는다고 하자.

가능한 실수  $a$ 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 **적성 · 인성**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에서는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소양,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면접이 진행됩니다.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 모집단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술대학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시간	
		답변준비	면접
디자인과	· 모집단위 관련 전공적성 및 학업능력을 평가 · 서류평가 자료를 활용한 심층적인 질의	없음	15분 내외

● 음악대학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시간	
		답변준비	면접
국악과	· 2단계 실기평가 및 서류평가 자료, 한국음악이론과 서양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음악적 소양 등을 평가하는 심층적인 질의	없음	10분 내외

● 수의과대학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수의과대학	· 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적성, 인성 등을 평가함 · 다양한 상황 제시와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학업 소양을 확인함 · 면접실 당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진행함(5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 의과대학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의과대학	·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상황/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함(6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모집단위	평가내용 및 방법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 치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과 인성을 평가함 · 다양한 상황 제시와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함 · 면접실 당 10분씩 총 4개 면접실에서 진행함(40분 내외)

❖ 상황 숙지를 위한 답변준비 시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음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적성·인성 면접 [수의과대학]

| 제시문 1 |

1. 수의학은 어떠한 학문인가요?
2. 미래의 수의학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 제시문 2 |

공동주택의 관리자인 지원자는 A동 801호로부터 '701호에서 청국장을 끓이고 있고, 그 냄새가 공동주택 전체에 퍼져서 불쾌하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 이에 지원자가 701호를 방문하여 민원내용을 전달하자, 701호 주민은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청국장도 못 끓여 먹느냐며 항의하였다.'

지원자는

- 1) 어떤 의견에 공감하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공동주택의 관리자로서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제시문 3 |

수의과대학 학생인 A와 B는 방학동안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중에 수의사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강아지 중성화 수술을 참관했다. 아직 수의사가 아니라 수술을 할 수는 없었지만, 미리 책을 보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과정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봉사활동 후 A는 중성화 수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수술법과 수술 사진을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사람들은 궁금했던 내용을 댓글로 질문했다. 다음날 아침 같은 과 동기인 B가 이 글을 읽었다.

지원자가 같은 과 동기 B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A가 질문에 답하는 것을 돕는다.
- 2) A에게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권유한다.
- 3) A에게 연락해 게시물을 지우라고 한다.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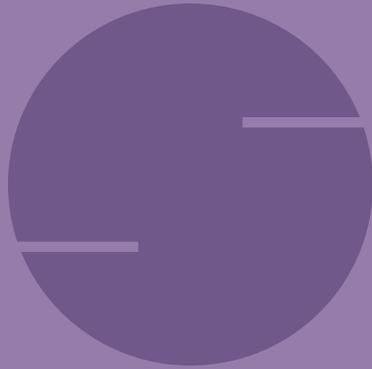
모집단위별로 평가되는 분야와 과목은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면의 제한으로 함께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전체 모집단위의 면접 및 구술고사 문항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와 웹진 '아로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한 학습 경험을 통해 학업역량을 길러온 학생들의 학업 소양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각 교과목 수업을 통해서 해당 과목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학습 과정 속에서 관련 도서도 찾아 읽고, 토론, 탐구, 과제 등 학습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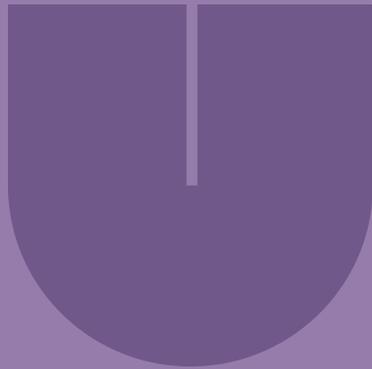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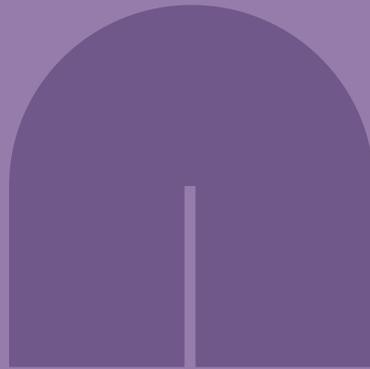
인문학, 사회과학 관련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다소 깊이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소에 독서활동을 성실히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단기간의 면접 및 구술고사 준비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독서와 각 교과목의 깊이 있는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우수한 학업소양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연과학 분야 면접 및 구술고사의 경우도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다뤄보거나 관련 이론 등에 대한 이해와 응용 연습을 해 보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수업 내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제를 만들어 친구들과 토론 학습을 해 보는 경험,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질문을 만들어 고등학생 수준에서 과제를 해결해보고 발표하는 활동 등도 각 교과목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울대학교 면접 및 구술고사에서 본인의 학업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IV.



##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준비하세요

미래의 서울대 학생 여러분, 그럼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여기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각 지원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며, '학교생활기록부'는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이 있는 그대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이처럼 학생부종합전형은 고등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전형이므로 무엇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구태여 대학에 보여주기 위해 무언가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즐기던 것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나가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는 전형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정량화할 수 없는 개개인의 역량, 관심사에 주안점을 둔 전형이니만큼,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열정과 작은 성취만을 보여 줄 수 있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의 분량, 내용, 형식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공부를 그대로 착실히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X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새내기 X의 생각처럼 학생부종합전型的 준비 방법은 주어진 환경에서 충실하게 고등학교 생활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나의 꿈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교 안의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여 최선을 다해 배우시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다면 마음껏 시도하고, 자신의 학업능력을 드러낼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더 그럴듯한 활동을 채우기 위해 애써 노력하거나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는 없을 소중한 기간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3년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 교과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 탐구와 사고를 통해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 교과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하는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 ○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하자

학문의 세계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교과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때입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나의 실력과 역량을 한층 도약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바랍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서적을 찾아서 읽고, 이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비 학자로서의 면모가 갖춰지지 않을까요?

이외에도 학교에서는 탐구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활동, 글쓰기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연마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교육 프로그램과 행사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다보면 여러분의 성장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얼마나 제공하느냐 여부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요소가 아닙니다. 학교마다 제공하는 활동 기회는 여건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업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 개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를 얼마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였으며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얼마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입니다.

## ○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충분히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눈앞의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세요. 단답형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수준, 오지선다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을 나의 언어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지식으로 만드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필요하다면 관련 책을 찾아보고 이전에 다뤘던 교과 내용도 참고해 보며 스스로 사고의 폭을 넓혀보는 연습으로 충실하게 지식을 쌓아가세요.

내게 중요한 과목, 진로에 맞는 과목에 더 노력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계획을 세워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장차 다양한 경험과 계기로 여러분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는 대학생활을 넘어 사회생활에 기초가 되는 교양의 밑거름이 됩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식이나 학문을 지나치게 편식하는 것은 지적 균형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과학자! 자연과학적 지식이 풍부한 인문사회학자! 철학과 과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여러분의 멋진 미래입니다.

## ○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수업 안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철학, 공학 분야 도서를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실 수도 있고 토론활동, 주제탐구 활동에도 관련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 읽고 또 읽어가게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타의에 의한 수박 겉핥기식 독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독서 활동 사항이 2024학년도부터 더 이상 대학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 내용이 대학입학전형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더라도, 독서를 통해 길러진 다양한 역량들은 여러 영역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독서는 독자 안에 어떠한 형식으로도 축적되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독서를 통해 길러진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축적된 지식과 경험은 여러분의 고교생활 전반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독서를 통해 생각을 키워온 큰 사람을 기다립니다.

## 도전하는 학생

- 고등학교 생활 중 스스로 도전해 본 경험은 무엇인가요?
- 더 알고 싶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나요?
- 관심 있는 과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수하였나요?
- 여러분이 생활해온 공간은 학교, 그리고 그 안의 교실입니다. 교실에서 여러분은 어떤 도전에 부딪히게 될까요?  
서울대학교는 이런 자기주도적인 학습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 ○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학교마다 교과목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선택에 따라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고 폐강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 유형에 따라 교과목이 제한적으로 개설되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들이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폭이 넓은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선택’, 때로는 이것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물리가 좋은데... 물리 I 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물리 I 희망자가 겨우 30명뿐이라고?  
생명과학 I 은 150명이 듣는데?’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서울대학교 지원자라면 이런 상황에서 등급의 불리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입학사정관은 교과 등급만으로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소수 인원이 수강하는 과목이라면 많은 인원이 이수하는 과목에 비하여 등급 수치가 우수하게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과목, 나의 현재 모습에 안주하지 않고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 도전하는 자세는 우수한 학업능력을 갖추게 되는 토대가 됩니다.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여 노력하기 바랍니다.

## ○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러분은 '미래를 개척하는 지식공동체'인 서울대학교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입니다.

이러한 지식공동체의 일원인 서울대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배운 지식을 활용해 보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풀이 연습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업활동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나 종류의 활동이라도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 수업과 대학 진학을 위한 학업활동을 별도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 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이며,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발표 수업, 토론 수업, 실험 수업 등 교실에서의 수업 방식이 다채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교실 수업에서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면서 흥미로운 분야를 발견하고, 나의 학업 역량을 더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아 봅시다. 수업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실험·실습 수업에도 충실히 참여합시다. 교과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탐구 경험을 통해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의 적성과 흥미도 발견하게 되고, 지적 성장의 뿌듯함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교과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과제를 내주신다면 선생님들이 주시는 배움의 기회를 더 심도 있는 지식을 쌓을 도전의 기회, 적극적인 학업태도를 기를 기회, 자신의 진짜 실력을 쌓을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과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그 기록을 꼼꼼히 살펴 여러분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배움의 과정은 면접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학교에는 여러분을 안내하고 이끌어 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 친구들과 모둠활동을 하는데 방향을 잡기 어려워요.
- 우리끼리 해결해가는 방법이 좀 미숙한 듯한데, 전문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 분야와 관련한 책 좀 소개해 주세요. 더 알고보고 싶어요.
- 이 분야와 관련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토론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저희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저희 논술 동아리 글쓰기 작품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선생님, 저희 이런 프로젝트 하게 해주세요.
- 과학 실험 동아리 만들었는데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배움을 통한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입니다. 이곳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공부의 재미와 맛에 푹 빠져봅시다. 아직 그런 맛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선생님과 상의해보세요.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열정을 다해 공부해 온 여러분을 서울대학교가 기다립니다.

##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 바른 인성을 갖추려 노력하였는가?
- 학교생활을 통해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 폭넓은 시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가?
- 학교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한 경험이 있는가?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이라는 뜻 외에도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이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여러분의 소양은 학업활동 이외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다져집니다. 세계 속의 리더로 성장해가는 예비 서울대 학생 여러분이라면, 열정을 담은 학교생활 속에서 훌륭한 인성을 갖춰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 ○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고등학교 생활은 무엇보다도 학업활동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폭넓고, 사려 깊은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학업 외에도 고등학교 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운동, 예술, 사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보이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때에 그 열정도 함께 가지고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활동을 해야 할까요? 예술 활동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활동의 종류나 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 외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학업에 열정을 쏟으면서도 조금 더 폭 넓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든지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조화로운 교우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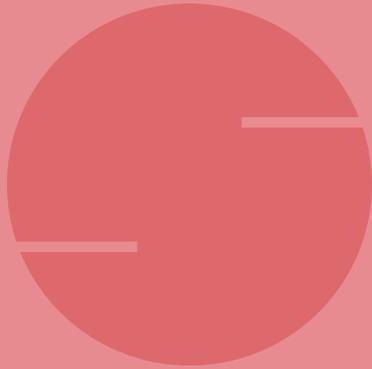
## ○ 서울대학교가 생각하는 리더십

‘리더십? 난 리더십이 별로 없는데…….’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것’과 ‘리더십을 갖춘 리더가 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활동, 협동학습 등에서 구성원을 배려하며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한 경험은 여러분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도록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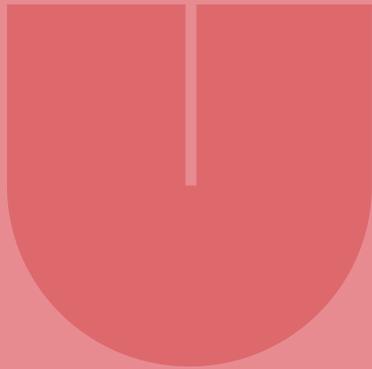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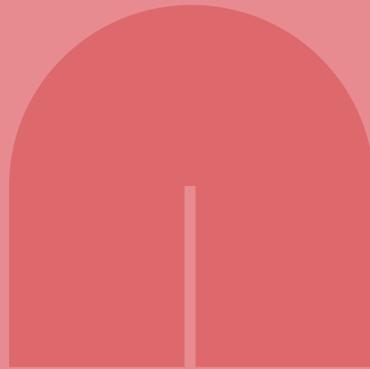
- 수업 중 모둠 과제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
- 토론활동에서 함께 결론을 이끌어가며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능력
- 학교생활 내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동아리활동에서 부원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 모두가 주저할 때 친구들을 독려하여 청소를 주도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장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갈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질입니다. 이러한 자질도 학교 내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길러온 다양한 능력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입학사정관은 여러분의 모습이 담겨있는 학교생활에 주목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V.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은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할까?’ 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이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통해 익히는 역량은 대학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는 초석이 되며 그 배움의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의 우수한 역량을 판단하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2023학번 신입생으로 입학한 선배들을 만나 고교 재학 중의 진로 탐색 과정과 더불어 이수 과목 선택 시 고려했던 점, 선택한 수업을 통해 배운 점 등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진로 탐색과 이수 과목 선택에 대한 자신만의 방향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이곳에 실린 선배들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필요한 밑거름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나 열매를 맺을 주인공은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옮겨진 선배들의 이야기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처한 여건에 맞게 선배들의 조언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깊이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도전해 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I 사범대학 교육학과 H I

### 가슴 뛰는 꿈을 찾았다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탐구하세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다 보면, 진로를 빠르게 결정하고 그 진로를 올곧게 유지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이 이제껏 쌓아온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진정으로 좋아하는 분야에 뛰어들기를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겁 많은 학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1학년 때 큰 고민 없이 상경 계열의 동아리에 들어가 경영학도 지망생으로서 살던 저는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나는 진정으로 그 꿈을 소망하는가?” **꿈은 가슴 뛰는 거라던데, 열정보단 초조함이 앞서 성급히 결정해버린 진로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부터 ‘꿈’과 ‘학교’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삶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과 진로의 관계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고, 학교 교육 현장 속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개성 있는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꿈은 무엇일까?’라는 개인적인 성찰이 ‘진로와 교육’이라는 사회적 담론까지 확장되었고 그렇게 교육에 대해 공부하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학의 많은 분야 중에서도 진로 교육에 가장 관심이 많았기에 이와 관련된 수업을 듣고자 노력했습니다.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진로와 자아의 개념을 배우고 싶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으로 ‘교육학’ 수업을 신청했고, 진로의 형성과정을 더 공부해 보고자 3학년 1학기에는 ‘심리학’을 선택해 수강했습니다. 이후 심리학 수업을 통해 얻은 통찰을 진로 교육의 효과를 탐구해보고 싶었고, 그 소망을 ‘사회문제탐구’ 교과를 통해 실현했습니다.

‘진로교육’을 키워드로 잡고 끈기 있게 탐구한 덕에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부족한 지식을 채워줄 과목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 선택에 앞서 ‘나는 무엇이 궁금하지?’를 먼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아주 작은 답만 할 수 있어도 과목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얻고 어떤 탐구를 하느냐입니다. 제가 교양과목으로 심리학 대신 철학을 선택했어도, 사회문제탐구 대신 세계사를 선택했어도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을 이해할 때는 보다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사회를 바라볼 때는 문제 중심보다 맥락 중심으로 조명하는 역량을 길러줬지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을 선택하든 치열하게 임한다면 분명 많은 성찰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I 인문대학 인문계열 M I

### ‘나’에 대한, 그리고 ‘예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

항상 마음에 담아두는 저의 좌우명은 ‘본질’입니다.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는 순간에도 “내가 추구해야 하는 본질,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고민하면 잘못된 생각의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진로 탐색과 고교 학업 방향을 정하는 과정은 저에게 “무엇이 본질적으로 옳은가, 좋은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생활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는 마지막 청소년 시기, 고교 생활 속에서 여러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그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보는 경험이 값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로 행복을 전하는 문화 기획자를 꿈꿨던 저에게는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의 가치는 아름다움인가?”** 등의 예술분야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미학’이라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이 저의 진로 탐색 과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예술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저의 결론이 즉, 문화 기획자로서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목적을 정하는 것이  
자 저의 진로일테니까요.

고교생활에서 했던 진로 탐색 활동의 일부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소개드릴 진로탐색 경험  
이자 공부경험은 예술의 보편성에 대한 탐구활동입니다.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1번 항목을 모두 채울만큼 1~3학년에 걸  
친 방대한 공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교 생활 초반, 예술에  
서 많은 행복감을 느꼈던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행복감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좌우명을  
명심하며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술에서 많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후 1학년 교과 '통합사회'에서 축제의 세계화를 다루는 활동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 <시학>을 읽어보며  
알게 된 예술의 보편성 가치라는 미학 연구 주제가 해결의 실마리 같았습니다. 이후 보편성에 관해 연구한 철학자들의 글  
을 읽어보면서도, 철학의 관점에서만 고민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 학교에서 진행하는 소인수과목 '사회 과제 연구'를 선택  
하여 이수하며, 대중음악 산업에서 예술의 보편성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술의 보편성 가치의 원인을 더욱  
인간 내면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보기 위해서 미학과 철학에 관한 공부를 대학에서 지속함과 동시에, 여러 예술  
의 보편성 가치 원인을 충족시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예술 기획을 꿈꾸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립하게 되  
었습니다. 즉, 본질과 근원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진로 탐색을 심도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수 과목 수업 선택에 대한 생각을 제가 고교 생활 중 선택했던 이수 과목 '과학사'와 관련된 경험과 함께 말씀드  
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수 과목을 수강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그 고민의 본질은 "어떤 과목이 높은 성적 받기에 유리하고  
쉬운가"라는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나는 어떤 배우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의 기준이 본질이자, 제 삶을 장기  
적으로 봤을 때 유익한 판단이라 생각했습니다.

## I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D I

### 다양한 교과를 충실하게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진로를 탐색했어요.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것은 다양한 관점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로가 명확하지 않다면 다양한 과목을 충실하게  
배우는 것으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으며 앞으로 있을 학습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경제 전반에 관심이 있긴 했으나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충실하게 학습하였습니다. 때로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과목일지라도 큰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윤리와 사상이 그러했습니다. 윤리와 사상을 배우기 전에는 윤리와 경제는 큰 관련이 없어 보였습니다. 단지 도덕적 판단  
에 있어, 그리고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사  
상은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습니다. 특히 노동과 권리의 관계에 대해 깊게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후 근로자 및 노동 시  
장을 탐구하며 관련 분야를 진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로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과목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적분과 기하를  
배웠습니다. 미적분은 경제 분석의 기본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기하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수학 분야든 수학을 학습하는 것은 수리적인 감각과 더불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

킵니다. 기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와 달리 쌍곡선이나 공간도형은 경제에서 활용할 일은 없지만, 기하와 수식의 관계를 생각하며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하를 수강하였고, 기하를 수강한 이후 수학적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어 사고력이 발달했음을 체감하였습니다. 진로가 분명하지 않다면 다양한 영역의 기초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하기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영역의 내용을 충실하게 배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진로 탐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후 자신의 진로가 분명해졌다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은 무엇인지, 대학의 관련 전공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배우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 본 후에 관련된 기초적인 역량을 다질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I 수의과학대학 수의예과 B I

### 진로와 직접 관련된 과목이 없다면, 좀 더 넓은 키워드를 잡아보세요.

저는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 관심사를 가장 많이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물과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헬스 개념에 착안하여 인간과 환경에 대한 과목들을 많이 수강하였습니다. 원헬스 개념이란 수의학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인데 인간과 동물, 환경이 하나의 헬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생태와 환경'이라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물건들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이 환경호르몬이 인간과 동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직접 계획하여 실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환경호르몬을 구하는 것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있었던 물건에서 환경호르몬을 직접 추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원헬스 개념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택했던 과목은 '보건'입니다. 저는 동아리 시간 친구들과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의 보건체계에 관심을 가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보건' 교과목을 수강하며 동아리 시간에는 알 수 없었던 전문적인 지식을 채워나갔습니다. 일상에서, 동아리 활동 중에, 다른 수업을 통해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내용들을 다른 선택 과목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지적 호기심들을 충족시키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다른 학교의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배워보고 싶은 과목이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다면 공동교육과정도 적극 활용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저는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의 공동교육과정을 수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알 수 없었던 공중 보건과 인간의 신체와 관련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학교의 시스템을 접하며 서로의 우수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 | 의과대학 의예과 T |

### 심화 과목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기본 과목을 이수하는 데 집중했어요.

저는 심화 과목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특정 과학 과목만이 제 진로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에, 물리/화학/생물학/지구과학 모든 과목을 이수했습니다. 모든 과학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드물었기에, 인기 교과목을 제외한 물리와 화학은 1등급 수가 1명이었고,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으로 인해 화학은 2등이 3등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꼭 이수하고 싶은 과목들이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수하였습니다.

수치적으로 좋은 성적이 아닌 제가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들을 선택한 것이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의 중요한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이 아닌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한다는 뜻은 각 학교별 여건과 그 학생이 과목을 이수할 때 느끼거나 배웠던 점들을 알아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정 진로에 국한되어서 수강하기보다는 본인이 미래를 위해 배우고 싶은 교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구과학이 제 진로와 관련이 없었지만 자연재해나 다양한 기후적 환경의 원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수강하게 되었고, 화산이나 황사와 같은 지형적/기후적 현상에 대한 탐구활동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과학 교과목을 수강하면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중요도의 차이가 없는 모두 중요한 과목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특정 과목 분야를 전공하게 된다면 다른 교과목을 들어볼 기회는 고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최대한 많은 분야의 과목을 이수해보는 것이 대학 과정 수료를 위한 기본 지식을 얻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치의과대학원 치의학과 W |

### 희망 전공을 정했다면, 그 학과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살펴보세요.

진로 탐색 과정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어느 분야에서든 연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분야를 찾던 중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치아나 구강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해당 분야를 좋아하는 것을 다양한 탐구(보고서 작성, 발표)를 통해 알게 되면서 진로를 치과의사로 정하고 목표를 치의학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선택과목을 선택할 때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저의 진로와 관심 영역이었습니다. 전략적인 유불리보다는 저의 지적인 흥미가 더 중요하다고 믿고 과목들을 선택하였으며, 관심이 가는 과목을 선택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학생부에도 더욱 풍부한 탐구활동과 학습 내용이 기재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학년 때는 과학 과목이 모두 절대평가였고, 또 제 희망 진로가 완전히 정해진 시기라서 저는 희망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화학2 생명과학2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교과목을 선택할 때 유불리보다는 저의 흥미, 그리고 저의 진로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Q |

**희망 진로를 찾았다면, 관련 학과와 관련 교과는 무엇인지 탐색해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래에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나갈 때, 저는 우연히 이스라엘의 무기체계 영상을 보았고, 이후 국방 분야에 관심을 갖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무기체계 공학자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ADD의 채용 모집 공고를 확인해본 결과, 기계공학부와 항공우주공학, 재료공학부 등의 관련 학과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우연히 접한 영상에 흥미를 느끼고 탐구해보는 과정에서 진로를 정했던 것 같습니다. 처처럼 **관심 직업을 먼저 찾은 학생이라면, 해당 직업의 채용 공고문 등을 통해 학과를 탐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 국방 분야라는 진로를 정하고 나니, 과목을 선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공학 분야를 진로로 잡았기 때문에, 물리학과 화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추가로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생명과학을 배워 웨어러블 장치 쪽으로 가볼까 했었지만, 저는 II과목 때 케플러 법칙, 원심력, 코리올리 힘, 등 물리학적 내용까지 이어지는 지구과학을 선택했습니다.

##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I |

**성적의 유희리,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선택을 하세요.**

학생들은 진로를 선택할 때나 이수 과목을 선택할 때 자신의 관심사 외에도 진로에 대한 평가, 과목에 대한 평가와 선택 수강자 수 등의 외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에 신경을 쓰며 진로의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신념대로 정한 진로와 이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초창기 단순히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와 논리, 과학적 원리와 표현에 흥미를 느낀 1학년 시절을 반영하여 2학년 탐구과목으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리가 수강자 수가 등급 경쟁에 불리하다는 두려움도 있었으나, 물리학이 수학을 다룸에 있어서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 결정을 이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택한 물리 과목을 통해 과학과 수학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지식의 활용 범위가 확장되며, 진로의 선택 폭이 넓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와 데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수학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통계학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였습니다. 진로의 방향성을 찾고 난 후, 3학년 선택 과목으로는 미적분, 기하, 정보과학 등 대학에서 통계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시에도 평균 등급을 걱정하는 친구들이 미적분과 기하 중 한 과목만 선택하고 정보과학 선택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저는 이러한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공부를 이어 나갔습니다.

진로 탐색과 이수 과목 선택에 있어서 주변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거나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길을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처음부터 **진로를 정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서둘러 결정한 진로에 따라서 이수 과목을 선택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학문, 더욱 심화적으로 학습하면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여 의미 있는 경험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현재의 좁은 가능성을 가진 학생으로 남기보다는 미래의 더 넓은 가능성을 가진 학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이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진로를 따라 물리학과에 진학하겠노라고 결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물리학과로 진학하여 가능하다면 학술 연구를 하고 싶지만, 중학교 때 부터 고등학교 입학해서 까지도 저는 번역가가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머지않아 이수 과목 선택과 같이 본격적으로 앞으로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선택을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걸 느껴 **‘과연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맞나?’**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도 종종 그토록 급격한 변화에 놀라곤 합니다. 늘상 어문학과로 진학할 것이라 생각해오던 것이 길지도 않은 시간에 물리학과로 바뀌었으니 말입니다. 그 이후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현재 나의 선택에 후회는 없다. 그러니 후회할지 어떨지 모를 그러한 상황보다는 높은 확률로 좋은 것이리라. 그러니 적어도 현재로서는, 나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리라.’**

그렇게 접게 된 번역가의 꿈이지만, 꿈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에 관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저에게 남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번역가를 향한 제 나름의 노력은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독파하는 능력을 길러주었고, 저에게 더 넓은 세계의 정보를 접할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꿈은 포기해 사라졌다고 해도, 그 꿈을 향한 노력의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목표하고 도전해오던 바를 상실하게 된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는 많은 것이 남아있을 것이고, 그것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혹여 끝까지 해내지 못할까 염려스러워 새로운 도전을 하는 데에 너무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생각을 멈추지 말고, 열린 자세로 꿈을 찾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리학과에 진학하고자 하니, 선택과목으로 물리, 물리Ⅲ를 고르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대로 선택했다고 해서 정해진 대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리과목의 수행평가는 늘 실험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교과서에 소개되는 실험을 직접 진행해서, 실험값과 이론값을 비교해보고 그에 관한 분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실험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물론 학문의 걸음마를 떼기도 전의 수준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실험 연습은 필수적이지만, 이론과 실험이 서로를 검증하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닌, 이론에 맞춰가기만 하는 이러한 실험은 말하자면 “죽은 실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허락하에, 여유 시간에 실험실을 찾아 번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머릿속에 담아두던 생각 중의 몇 가지를 주어진 기구로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고안해 진행해보았습니다. 대체로 실패한 적이 많았던 것 같지만, 직접 실험을 고안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일은 아주 생생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과목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어떤 과목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단순히 수업을 따라가는 것 이상으로 무언가 적극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혹여나 있을지를 잘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과목 간의 '유기성'과 과목 이수를 통한 나의 '발전 가능성'에 집중했어요.**

제가 **이수 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먼저 고려했던 첫 번째 요소는 유기성**입니다. 학교생활 과정에서 특정한 주제를 학습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주제에 대한 탐구가 해당 단원, 해당 과목, 나아가 해당 학년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이수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전까지 이수했던 과목들과 그 속에서 탐구했던 내용은 물론 함께 이수하게 될 과목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제가 2학년 때 이수한 '사회·문화' 과목을 이수하며 당시 관심 분야였던 ESG에 관한 사회 현상을 탐구하였고, 이 때 새롭게 생겨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3학년 때 '사회문제 탐구' 과목과 '환경' 과목을 선택하였습니다. '사회문제 탐구' 과목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유형과 이를 탐구하는 구체적 방법론에 관해 공부하며, 이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를 보다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또한, '환경' 과목을 통해 ESG의 세 분야 중 환경 요소에 관해 자세히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목 간의 유기성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드러나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언어와 매체', '정치와 법' 두 과목을 3학년 때 함께 이수한 덕에, 한 가지 주제를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예로, '언어와 매체' 시간에서는 메타버스가 차세대 광고 매체로써 기능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 탐구했다면, '정치와 법' 시간에는 메타버스가 차세대 광고 매체로써 기능하게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하며 균형적인 관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수 과목을 선택할 때 과목들 서로 간의 유기성을 고려한다면, 탐구 내용에 관한 종적 진보는 물론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를 조명하며 횡적 확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번째 요소는 발전 가능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전 가능성이란, **'해당 과목 또는 해당 수업을 이수함으로써 그 전보다 나은 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나를 성장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란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장통이 없다면 성장 또한 없다는 것을 후배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수한 과목 중 '경제' 과목은 당시 같은 학년 친구들이 공부하길 꺼려하던 과목이었습니다. 성적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저는 '경제' 과목을 선택하였고, 수업이 이어질수록 수요와 공급, 시장과 국가 경제, 경기와 금융에 관해 차근차근 공부하며 경제 뉴스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가 선명해짐에 따라 경제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지속적인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저는 유기성과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며 과목을 선택한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1학년 때 단순 명사에 그치던 제 진로가 구체화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또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후배 여러분. 성적에 대한 압박이나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에게 주목해보길 바랍니다. **성적표에 기록될 숫자 몇 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에 따라 장기적인 선택을 내리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제가 선택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했던 부분이 '나는 이 과목을 배우고 싶은가?' 였습니다.**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하는 과목은 신청 인원 수가 채워지지 못하면 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을 못 듣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이것은 일부러 저의 시간을 내서 학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배우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학년 때는 수학 영재 학급을 이수하여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부분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이 경험은 제게 있어 주변의 것들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지 않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 예측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오차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탐구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었고 관련 내용이 비문학 지문으로도 나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2학년 때도 원하는 과목을 학습하며 평소 제가 어려워했던 회화나 영어 발표를 할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이는 제게 또 하나의 성장 과정으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보다는, 내가 이 수업에서 무엇을 얻어가고 싶은지를 선택 기준으로 계속 삼았습니다.** 당장 영어 회화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대입에 도움이 되거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약한 부분에 도전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은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었던 프로그래밍은 정말 100% 저의 흥미가 반영된 선택이었습니다. 다들 공부하느라 바쁜 와중에 제가 이 수업을 듣는 것을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지만 결국 저는 프로그래밍 수업에 매우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고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과정인지를 알게 되었고 진로를 컴퓨터 쪽으로 틀어볼까 하고 잠깐 고민했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제에게 있어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의 경험은 제가 계속해서 다른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시도해보는 데 있어서 훌륭한 선례가 되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 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보면 고등학교 생활은 그저 버티기의 연속이 아니라 탐구하고 개척하고 새로운 도전을 반복할 수 있는 장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 과목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이고 힘들지만 재미있게 공부한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 I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 |

###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공부하는 경험을 해보세요.

중학생 때부터 국문학을 사랑했고 국어학이 재미있어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하겠다고 심지를 굳혔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 진로 자체를 탐색하는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때때로 고민했던 건 **국문과를 지망한다고 해서 국문과에만 초점을 맞춘 공부를 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제가 배우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문학과 만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거기에 잠식되어 편협해지는 일만은 경계하려 했습니다.** 미래의 인문학도로서 역사와 철학 과목인 '세계사', '동아시아사',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를 즐겁게 공부했지만, 거기에만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학년 때에는 '화학'을, 3학년 때에는 '미적분'을 선택해 공부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들이 통상적으로 잘 듣지 않는 과목들이어서 선택과목을 고를 때마다 조금은 쭈뼛거리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제게 큰 확신을 심어준 것이 (여러분도 읽고 계실)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였습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자의 문장을 외울 정도로 반복해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용기를 얻어 '자연계열 과목'으로 분류되는 화학과 미적분을 공부했고, 수능 수학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해 응시했습니다. 수학과 과학을 특출나게 잘했던 건 결코 아니고, 잘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면 저의 시야가 조금이나마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화학 시간에 배운 오비탈 개념은 파동함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고, 미적분 시간에 이를 확장해 복소해석학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었어요. 수준이 높거나 통찰력 있는 탐구를 수행한 것은 아니었지만, 오일러 등식의 증명을 알팍하게나마 이해하며 손으로 써보던 순간의 즐거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오비탈 함수는 '불확정성 원리'를 따르는 것이기도 한데, 3학년 때 활동한 자율 동아리에서는 이와 관련해 심화된 활동을 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융합적으로 탐구하는 동아리였는데, 함께 문학 작품을 읽고 불확정성 원리를 적용해 해석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는 서로 다른 학문 분야들 사이에 날카로운 금이 그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그걸 넘어설 때 우리는 더 큰 눈을 갖고 즐거이 공부할 수 있다고 느껴요.** 저 또한 아직 갈 길이 멀고 배울 것이 많지만, **한 번이라도 그어진 경계선을 넘어서 공부하는 경험을 해보시라고 여러분께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고 마침내는 허물어뜨리는 일을 우리가 머지않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온 선배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진로 탐색의 과정과 이수 과목 선택에 정해진 정답은 없었지만, 선배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자신의 **꿈은 무엇인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꿈을 찾게 된 계기도, 시기도, 변화의 과정도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모든 학생들의 공통점은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이 무엇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그리고 학습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꿈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기도 하고, 각 교과에서 우연히 접하고 배운 내용이 희망 진로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진로 탐색을 통해 학습의 방향성이 결정되고, 학습의 과정을 통해 다시 진로의 방향성을 재정비해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희망 진로나 전공을 결정한 학생들은 **각 진로 영역에서 어떤 역량을 요구하는지, 또 각 전공에서는 어떤 대학 교과목들을 배우는지 찾아보고 이를 이수 과목 선택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교과목을 단순한 고등학교 교과로만 보지 않고, 지식의 연장선의 한 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혜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과목의 난이도, 성적의 유불리,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배워가고 싶은가?',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이수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은 그 과목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바를 배웠고, 얻고자 하는 바를 얻어가는 수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안내(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 안에서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교육과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자연스럽게 대학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안내합니다. 학생 여러분이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현재 고교 3학년 학생부터 적용됩니다.

###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 핵심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인문 대학	인문계열	-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서어서문학과			
	언어학과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사회 과학 대학	정치외교학부	-	-	
	경제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사회학과	-	-	
	인류학과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언론정보학과				
자연 과학 대학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통계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천문학전공	지구과학 I,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 II, 물리학 II, 확률과 통계
	화학부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생명과학 II, 미적분	화학 II,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물리학 II 또는 화학 II 또는 지구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간호대학	-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경영대학	-	-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공과 대학	광역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건설환경공학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기계공학부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재료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화학 II, 확률과 통계	
	전기·정보공학부	물리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화학 II 또는 생명과학 II	
	건축학과	-	미적분	
	산업공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농업 생명 과학 대학	원자핵공학과	물리학 II, 미적분	-	
	조선해양공학과	물리학 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물리학 II,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 II, 확률과 통계	
	농경제사회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식물생산과학부	생명과학 II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화학 II, 생명과학 II	-	
미술 대학	응용생물화학부	화학 I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확률과 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 II 또는 화학 II	
	동양화과	-	-	
	서양화과			
조소과				
공예과				
디자인과				
사범 대학	교육학과	-	-	
	국어교육과	-	-	
	영어교육과	-	-	
	독어교육과	-	-	
	불어교육과	-	-	
	사회교육과	-	-	
	역사교육과	-	-	
	지리교육과*	-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윤리교육과	-	-	
	수학교육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물리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생명과학 II	화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 I	지구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활 과학 대학	체육교육과	-	-	
	소비자이동학부	소비자학전공	-	
		아동가족학전공	-	
	식품영양학과*	화학 II, 생명과학 II	-	
의류학과*	-	화학 II, 생명과학 II 또는 확률과 통계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약학대학	약학계열*	화학 I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음악 대학	성악과	-	-	
	작곡과			작곡전공
				이론전공
	기악과			피아노전공
				현악전공
관악전공				
의과대학	의예과	생명과학 I	생명과학 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자유전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치의학 대학원	치의학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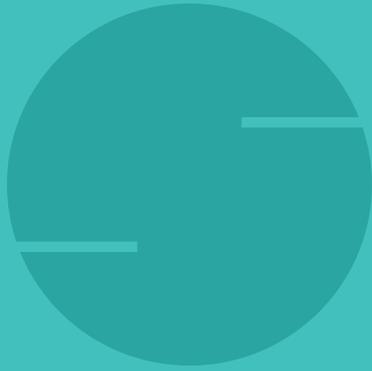
\* 해당 모집단위는 2025학년도에 변경이 예고된 모집단위로, 자세한 사항은 <2025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확인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왜 지정되었나요?

-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각자가 지닌 적성과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공부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선택'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각 전공 분야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 목표에 따른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안내합니다.
-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핵심 권장과목 및 권장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모집단위별 핵심 권장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며, 권장과목은 모집단위 수학을 위해 교육과정에서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입니다. 아울러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학과(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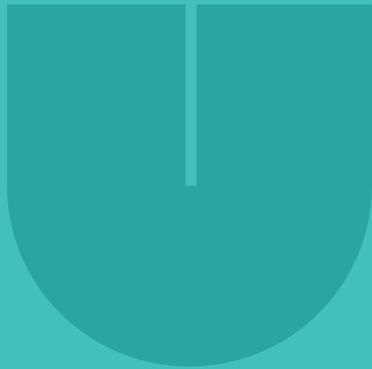
##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 이수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 + 네,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지원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평가에 반영합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은 각 학과(부)에서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과목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과별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의 이수 내용은 평가에 반영됩니다.
- + 다만, 서울대학교는 고교 재학 중 학생의 진로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며 학생이 수학하는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이나 운영 여건이 다양함을 알고 이를 평가 시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미이수한 경우라도 학생이 이수한 다양한 선택과목 내용에 나타나는 적극성과 충실성 등을 평가에 반영합니다.



미래의  
인재를  
기다리며

VI.



##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해온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성장해 온 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간혹 특별한 재능과 활동이 있어야만 합격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재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은 내신 성적 등급 점수가 높게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평가는 학교 안에서 꾸준한 성취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 학생이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학교 안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보여주기 식의 활동이 아니라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 인성을 길러주는 모듬 활동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 교육 안에서 깊이 있는 지적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보다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재능과 적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업과 과제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활동 안에서 올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외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선배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의 목소리를 빌려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책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인문대학 고고미술사학과 C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하면서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서울대학교의 원하는 학과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입학을 준비하며 이러한 생각이 몇 번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이 든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껏 열심히 달려왔다는 증거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인을 끝까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원자에 비해 자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레 자신의 모든 능력치를 쏟아붓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서울대학교에 가겠다고 다짐한 이상, 여러분들은 자신이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모든 본인의 잠재력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든 마찬가지겠지만,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이나 계열에 최선을 다하여 입학을 준비하신다면 학교 또한 그러한 여러분의 진심에 손을 내밀거라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의 노력에 서울대학교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여러분의 손으로 맞이하실 날이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 경영대학 P

저는 다른 말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후배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입시는 때때로 우리에게 긴장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이 오기도 하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스스로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꿈꿀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껏 가치 있는 노력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그런 여러분을 잠식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에너지의 방향을 조금만 바꾸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으로 흐르게끔 하세요.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세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날까지, 저는 관악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갈 그 날을 기대합니다.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Q

제 고등학교 생활을 돌이켜보면, 저는 항상 걱정과 두려움에만 갇혀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수능 최저에 대한 두려움, 면접 합불 여부의 걱정 등 다양한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기분이 다운되어있고, 표정이 어딘가 어두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았을 때,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긴장감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 대신, ‘더 해야해, 아직 부족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 열심히 해 온 기억을 되살리며 ‘시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노력에 상응하는 만큼의 점수를 받을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할 때 저는 이 표현을 싫어했습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 반례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맞았습니다. 꼭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노력하셔서, 합격하는 결과를 받길 바랍니다.

## 사범대학 교육학과 F

저는 여러분이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고 수업을 듣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함이 아닌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좀 더 준비된 자세로 사회에 나가기 위함입니다. 매 순간을 열심히 사세요. 비단 공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쉬 때도 열심히 쉬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공부할 때도, 독서할 때도 매 순간을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노력과 성장의 과정을 세상은 분명히 알아줍니다. 그 결과가 서울대학교일 수도 있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환경 탓, 주변 탓,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선에서 정성을 다하고 자신의 생애 기대와 예의를 담고 웃으면서, 때로는 울면서 멋지게 성장의 과정을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많은 호의와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씩 곱씹어보면 세상에는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너무 힘들수도 있고 죽고 싶을 수도 있고 무언가가 미친 듯이 싫을 수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보는 과정이고 그 시기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삶은 분명히 여러분의 노고와 가치를 알아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이제껏 달려온 자신을 다독여주고, 더 큰 꿈과 미래를 그리며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날 앞으로의 미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 사범대학 교육학과 H

너무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온 당신은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다만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며 하는 공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수치가 아니라 이야기, 자신만의 서사입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등수나 등급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공부했는지를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응원합니다!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O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학교생활을 진심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지도 마시고,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싶은 활동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간 학생회 부회장, 회장으로서 여러 학교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입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자치회 활동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생자치회 활동이 재밌고, 그 경험이 정말 유익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에 학생회 지원에 주저하지 않았으며, 덕분에 의미 있고 뜻깊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를 직접 기획하기도 하고, 다른 학교와 연합하여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을 제공해주기도 하는 등 다양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오히려 학생이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느꼈는지를 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활동이라도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활동을 발견한다면 주저 없이 그 활동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고등학교 내 모든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학교생활을 즐긴다면 분명히 그 모습과 태도는 남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 최선을 다해 후회 없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A

2024년 학생부종합전형, 즉 여러분들의 학년부터 자기소개서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들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가 사라지는 것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가 사라진 만큼 대학교는 지난 3년간 여러분의 발자취를 더욱 살펴보고자 노력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자기소개서 폐지는 여러분들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생활 기록부를 채워나가는 데에 있어서 누구를 모방하거나 무작정 선례를 따라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방법에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것 하나만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저의 조언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향과 다를 수도 있으니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 가끔씩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다양한 강의명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학교에 개설된 강의명들을 살펴보면서 미래의 내가 듣고 싶은 강의들을 미리 눈여겨보고 나면 동기부여도 되고, 활동의 방향성을 되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매사에 성실하게 임한다면 충분히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W

저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기본적인 마음가짐 및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수많은 명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connecting the dots’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중퇴한 후,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이었던 서체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경험은 이후 아름다운 서체를 가진 컴퓨터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개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죠. 스티브 잡스는 이런 미래를 예상하며 서체 수업을 들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하나의 점으로 남아있었고, 미래에 찍힌 새로운 점과 연결이 되어 멋진 길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런 마음가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결코 헛된 것은 없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 해야 할까’ 또는 ‘이건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와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활동을 하든 소홀히 하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 작은 경험이 하나의 점으로 남아 미래에 여러분의 길을 연결해 줄 테니까요. 하다못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경험은 나중에 여러분이 더 힘든 일을 버틸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든 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태도를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늘 열정적으로, 또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함께 하며 끊임없이 자신과 소통한다면, 훨씬 더 성장한 자신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나갈 멋진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B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본인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방의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서울만큼 높은 교육적 인프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많이 다니기 보단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 마다 교무실을 찾아다니던 덕분에 선생님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탐구활동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도 주변 환경을 많이 이용했으며, 학교 주변 호수의 수질정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의 후배님들도 자신의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대학교도 후배님들의 노력을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경험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 축제 때 사회자를 맡아 진행하기도 했고, 직접 무대에 올라가 친구들과 공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그 덕에 3년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공부에 메여있지 말고 추억들을 쌓으며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N

저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서울대학교에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대학교라는 범위 안에 서울대학교는 빠져있었죠.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나하나씩 쌓아 나가다 보니 그 대학교가 저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희망하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학교만 희망하기보다는 현재의 생활에 착실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대학교가 여러분의 시야에 보일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오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을 빕니다.

## 생활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U

한 번뿐인 고등학교 생활을 후회와 불안으로 채우기보다 오늘 나의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며 하루를 소중히 보냈으면 합니다. 수험생활 중 저를 가장 두렵게 했던 건 당장 오늘 해야 할 공부가 산더미만큼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이나 면접을 망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과 같이, 이게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일까 싶은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만들어진 불안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저를 버틸 수 있게 한 건 일상생활 속의 '소확행'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매점에 좋아하는 음료를 사러 간 순간, 학교 저녁으로 마라탕이 나오던 날, 야자가 끝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집에 오던 그런 순간들, 결국 그런 순간들이 제가 고3을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달려온 이유도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보고 싶었기 때문일 거라고, 오랜 시간 그 순간들을 꿈꾸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기보다 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하는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최대한 좋은 생각들 속에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조금 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그렇게 힘이 되는 순간들 속에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모두 학교에서 후배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Z

먼저 서울대학교에 오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마다 왜 서울대학교를 희망하는지, 서울대학교의 어느 과에 가고 싶은지는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울대학교에 진심으로 입학하고 싶다는 것은 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만큼 입학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많을 것이고 입학 후에 찾아올 성취감을 상상하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학교생활에 임하고 공부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야간 자습이 끝나고 친구들과 얘기하며 3분 동안 기숙사로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슬플 때는 룸메이트들과 가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너무나도 힐링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에만 열중하시기보다 이렇게 가끔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기 자신을 가꾸고 삶에서 행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것이 직업이든,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든, 어떤 것을 하겠다는 행위이든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이 임했을 때 얻는 것이 가장 많고 값지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E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는 날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주저 하지 말고 쉬세요. 그리고 밖을 꼭 나가세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도 보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을 듣고, 사진도 마음껏 찍으면서 쉬세요. 그리고 다시 이어 나가면 됩니다. 당장에 쉽이란 너무 큰 죄책감으로 다가와 쉽지 않겠지만, 수험생활은 생각보다 숨이 깁니다. 매일 나태하게 보내서는 안 되겠지만, 매일 실 틈 없이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적재적소에 쉬는 날을 꼭 배치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K

학생부종합전형에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막막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것은 불이 다 꺼진 깜깜한 방 안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하신 학교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무의미한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종종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학생으로 보이겠다는 부담감은 내려놓고 솔직한 나를 드러내려고 해보십시오.

서울대학교가 모든 분야에 정통하고 박학다식한 영재들만 오는 학교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다 배운 학생이 아니라 더 배울 준비가 되어있는 학생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서울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Stop! 궁금해하고, 배우고, 협력하는 능력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서울대학교가 찾는 인재입니다.

## 의과대학 의예과 T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다는 것에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엄청나게 어려운 심화 탐구활동과 다양한 고급 과목을 이수하는 등 대단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생기부가 있어야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 지역적 특성상 고급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도 않았고, 어려운 실험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기에 저는 그저 제 상황에서 최선의 학교생활을 해 보자 다짐하였습니다. 학교 실험실에서 가능한 실험 중 제 관심 분야와 관련된 그람염색법이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을 진행해보고, 이 실험을 고등학교 때 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록으로 남기 고자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봉사활동이 어려워지자 보건실 도우미 봉사나 건강 캠페인 등 학교 내에서 가능한 활동들을 찾아 참여하였습니다. 거창한 활동들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행사들에 참여했는지만 보여준다면, 서울대학교 합격은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생활의 목표가 서울대학교 입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본인이 열심히 살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서울대학교도 여러분을 알아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가 원하는 인재상은 뛰어난 환경에서 생활한 학생이 아닌, 어느 환경이든 뛰어나게 생활한 학생임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S

우리가 '서울대생'을 바라볼 때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 존재합니다. 전교 1등에 가까운 정도로 엄청난 학업 성취도, 시험 기간에는 하루에 2~3시간씩 자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 1학년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잡아놓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열정가. 물론 이렇게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서울대에 진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러한 것만이 서울대를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제가 여지껏 봐온 서울대는, 현재에 완성되어있는 인재보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인재를 더욱 선호하는 학교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 스스로가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학문을 향한 진지한 자세와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악산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디딜 자격이 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학교생활기록부는, 전국 어디에서도 똑같은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여러분만의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그 중이에,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사와 노력한 과정을 담아내세요. 서울대는 그 어떤 'FM 생기부'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더욱 환영할 것입니다.

##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J

제가 읽은 한 책 속에 나오는 '특권적 무지'라는 단어는 정말 앞으로 살면서 잊어버리면 안된다고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단어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기 전 고등학교에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의 상위권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특권들을 누려왔을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에서 어느 정도의 특권을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상위권 학생이 아니어도 모든 이들은 특권을 누리고 삽니다.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특권을 받고 있을 겁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여러 수험생들에게는 힘든 이야기겠지만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되었어도 깨닫는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학교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 L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치있는 사람입니다. 대입 경쟁 속에서 너무 자신을 혹사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셨으면 합니다. 대학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신의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서울대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를 더 많이 잡기에 좋은 장소일 뿐이지요. 물론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목표를 서울대로 잡기에 충분합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되 너무 대입에 매몰되어 스스로 상처받지는 마시고, 단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가길 바랍니다. 입시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지금 노력하여 얻은 것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합격증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무형의 자산과 가치들이 많기에 여러분은 이미 미래를 써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대를 목표로 하신 후배님들 모두 서울대 24학번이나 25학번, 또는 그 이후 학번으로 뽑기를 바라며, 설령 다른 학교로 가시더라도 미래에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X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공부 계획이라든가, 인생 계획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변화무쌍합니다. 어제의 예측이 오늘은 맞지 않고, 아침의 예측이 밤에는 맞지 않습니다. 개인이 공들여 세운 계획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백지로 돌려버릴 정도의 거대한 변화조차도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원칙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아무리 탄탄해 보여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신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원칙이나 계획을 기준 삼아 사력을 다해 그것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이 꽤나 위험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을 가져올 필요도 없이, 대학 입시라는 것만을 보더라도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나 계획이 세세하고 구체적일수록 위험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한들 거의 바뀌지 않는 것이 있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사항들로 넘어갈수록 그러한 것들은 매우 적어집니다.

물론 그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일단 세워야만 하거나, 최소한 없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계획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슬기롭게 이용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언제나 점검을 하는 태도를 지녔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점검이란, 자신이 계획에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계획 그 자체의 점검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세운 계획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지키는 것은, 성실성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사고의 태만을 증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면함은 미덕이지만, 근면함만을 가지는 것은 미련합니다. 과거의 자신에게 삶을 맡기지 말고, 늘 현재의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묻습니다

### ? 수시모집에서 서류평가 방법이 전형마다 다른가요?

- 서울대학교의 수시모집은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이 있습니다. 이 세 전형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이므로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이 서류 외에 평가에 반영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세 전형의 차이점은 지원 자격에 있으며, 서류평가 방법과 기준은 같습니다.

### ? 수시모집에서 여러 개의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있나요?

- 우리 대학의 수시모집에 지원할 경우 두 가지 전형에 복수 지원할 수 없으며, 서로 다른 모집단위에도 복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시모집 일반전형과 지역균형전형 혹은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등에 함께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개 전형의 한 개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할 수 없나요?

- 수시모집 지원 자격과 교과이수기준 충족 여부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교과이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지원하는 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교과이수기준은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교육과정 내에서 폭 넓은 교과를 이수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아 기준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가능한 지원 시점 이전까지 고른 교과목을 이수하여 고른 학업소양을 갖추기를 권장합니다.

###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 지원자를 어떤 기준으로 추천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졸업예정자 2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추천 자격이나 조건에 대해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천 권한은 소속 고등학교장에게 있으며, 각 학교를 대표할 만한 우수한 학생들을 추천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는 정시모집에서는 전혀 선발하지 않나요?**

- 서울대학교 신입생이 되고자 준비하는 학생은 전형별 선발인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위에 따라 수시모집만 실시하거나 일부 전형에서만 학생을 선발하기도 합니다. 수시모집으로만 선발하는 모집단위의 경우 정시모집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시모집에서 합격자 총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음악대학을 제외하고 미충원 인원을 정시모집에서 선발합니다.

**? 서류평가에서는 교과성적을 산출하는 별도의 방식이 있나요?**

-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모든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순으로 선발하지 않으며 성적을 산출하는 공식이나 보정점수를 주는 방식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성적이 꼭 향상되어야만 좋은 평가를 받나요?**

- 정해진 모습은 없습니다.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고학년이 될 수록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따른 동일과목 수강자가 적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평가합니다. 즉, 선택한 과목의 수준과 수강자 구성, 인원으로 인하여 단순히 등급이 내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오히려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유리한 과목만 이수하여 결과적으로 수치만 좋게 받으려 한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수인원으로 구성된 과목을 이수해서 석차등급이 다소 낮아지면 평가에 불리한가요?**

-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과성적을 평가할 때 단순히 등급 수치만 고려하여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지원자가 이수한 과목과 함께 수강한 학생들의 구성,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므로 소수 학생이 이수한 과목 때문에 등급이 낮아졌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생이 자신의 진학 목표를 고려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노력을 보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모집단위별로 반영 교과가 정해져 있나요?**

- 모집단위와 상관없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교과의 성적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 기재된 교과성취도(내신)의 3년간 이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내용, 그 과목에서 성취한 등급, 원점수,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별 분포비율, 수강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공부한 내용과 그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서울대학교는 학교에서 충실히 공부하여 모든 교과에서 고르게 우수한 면모를 지닌 학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전공연계 교과이수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입니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여가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 수시모집에 지원하는데 반드시 수능을 응시해야 하나요?

- 지역균형전형, 수시모집 일반전형 중 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지원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능에 응시해야 합니다. 이 때 서울대학교가 정한 모집단위별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지켜야 하므로 반드시 모집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수시모집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미술대학 디자인과,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제외),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수능 응시영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며 수능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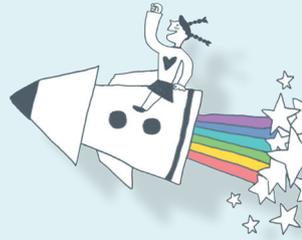


###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수시모집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단순 정답, 단편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닌 교과 지식과 기본개념 이해를 토대로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알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연습은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문제풀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독서, 글쓰기, 토론, 발표, 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전형과 기회균형특별전형(사회통합), 정시모집 기회균형특별전형(특수·북한) 면접은 제출서류를 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과 기본적인 학업소양을 확인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면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웹진「아로리」에는 기출 제시문과 면접 우수자 인터뷰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아로리 사용 설명서

「아로리」- 입학본부 웹진(<http://snuarori.snu.ac.kr>)



입학본부 웹진 아로리는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된 정보를 폭넓고 다양하게 전달하여 서울대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웹진입니다. '아로리'란 말의 뜻이 친구, 지인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누구나 친근하고 손쉽게 아로리를 이용하여 입학정보, 대학생활 등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교 생활	내가 이곳에 오기까지	서울대학교 신입생의 인터뷰 내용으로 고등학교 생활담과 현재 대학 생활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들의 서재	서울대학교 신입생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 읽었던 도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 이슈이슈!	학교 현장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 이야기와 우리 교육계의 쟁점 사안에 대한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입학 안내	전형안내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을 안내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입학사정관	서울대학교 합격생의 서류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모집단위에 지원했던 선배들의 서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입생들이 들려주는 면접 이야기	서울대학교 면접 우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창고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기출자료와 입학본부에서 발간한 각종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생활	관악로 1번지	서울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 서울대학교의 인재상 등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공 소개	서울대학교 단과대학과 소속 학과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메뉴입니다. 전공소개 동영상을 통해 생생한 전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전공, 나의 진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들의 인터뷰가 담겨 있습니다.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 엿보기	예비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교통, 기숙사, 동아리, 장학금, 도서관 이용법, 식당, 학생증 등 대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webzine 아로리  
<http://snuarori.snu.ac.kr>





# VERITAS LUX MEA



SEOUL  
NATIONAL  
UNIVERSITY

##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150동 4층 입학본부 (우)08826

전화\_ **02.880.5022 / 02.880.6974~6**

팩스\_ **02.873.5021**

※ 이 책자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